coupang newsroom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시리즈 '직장인들' 시즌 2, '지창욱-조우진' 최종화서 멀티 활약! 인기에 시즌 3 제작 확정!

2025. 9. 29.

쿠팡플레이 시리즈 '직장인들' 시즌 2 관련 이미지

쿠팡플레이 시리즈 '직장인들(연출: 김민, 강나래)' 시즌 2가 시작부터 끝까지 파인 다이닝급 웃음 만찬 제공으로 시즌 1의 인기를 훌쩍 뛰어넘는 갓벽 피날레를 펼치며 '풀코스 명작'임을 증명했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직장인들' 시즌 2는 월급 루팡과 칼퇴를 꿈꾸는 DY기획의 찐직장인들, 스타 의뢰인과의 심리전 속에서 펼쳐지는 리얼 오피스 생존기!

'직장인들' 시즌 2는 지난 8월 9일 공개 직후 쿠팡플레이 인기작 1위에 오르며 화려하게 출발했다. 공개 첫 주 대비 시청량 1,023% 급증, TV-OTT 통합 비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부문 3주 연속 1위(김원훈, 출처: 굿데이터코퍼레이션 펀덱스)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하며 '명불허전' 인기를 입증했다. 또한 쿠팡플레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시즌 2 클립의 전체 조회수는 약 5,000만 뷰에 달하며, 100만 뷰를 돌파한 클립만 20여 개 이상을 기록해 대중의 뜨거운 반응을 실감케 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시즌 2가 종료되기도 전에 시즌 3 제작이 빠르게 확정되며 '직장인들'은 쿠팡플레이 대표 인기 시리즈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지난 27일 공개된 '직장인들' 시즌 2 최종화(8화)에서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2,770만 명 이상을 보유한 글로벌 톱스타 지창욱이 등장했다. DY기획으로부터 사업 아이템 및 차기작 제안 컨설팅을 받는 에피소드가 그려졌으며, 지창욱과 DY기획 직원들 사이의 아슬아슬한 '기싸움'이 큰 웃음을 자아냈다. '지창욱 미팅'은 DY기획의 사운이 걸린 중요한 자리. 직원들은 성과를 만들어야 했고, 지창욱은 카리스마 넘치는 클라이언트로 등장해 즉석 라이브 방송 요청, 추억의 놀이, 상황극 연기 등 직원들의 짓궂은 애드리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하지만 선을 넘는 순간에는 클라이언트로서 제동을 걸고,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팩폭까지 서슴지 않는 '밀당 마스터'로 활약하며 지창욱은 시즌 2의 피날레를 완벽하게 쏘아 올렸다.

또 이날 배우 조우진이 '이수지 전남편'으로 깜짝 등장해 코미디 장인들이 즉석에서 빚어내는 애드리브의 매운맛을 톡톡히 경험했다. 이수지와 재결합을 원하는 조우진이 '현남친'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현봉식은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내 남자다. 왜 말을 못 하냐고!"라며 인기 드라마 속 명대사 패러디로 '도파민 파티'를 오픈해 시청자들의 폭소를 유발했다. '베테랑 연기파 배우' 조우진은 "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존경스러웠다"라는 생생한 후기를 남겼다. 이처럼 '직장인들' 시즌 2는 매화 예측 불가한 포인트로 웃음 포텐을 터트리며 얼마나 고도의 코미디 기술과 합이 필요한 작업인지 입증했다.

이밖에도 '직장인들' 시즌 2는 월드클래스 스타들을 예측 불가한 코미디 상황극에 몰아넣으며 돌발 웃음을 만들어냈다. '웃음 스나

이퍼‘ 김원훈이 ’엄마 찬스‘를 부르게 한 ’코미디 장인‘ 조정석부터 반전의 ‘웃음 고수’ 이세돌, 웃음 기선 제압에 나선 손흥민, ‘멀티 활약’을 보여준 권나라, 하극상 육탄전까지 펼친 ‘일일 인턴’ 스윙스, 고자극 웃음 도파민을 선사한 ‘리액션 여왕’ 조여정과 ‘나이스한 김원훈 킬러’ 정성일, 남다른 웃음 장벽으로 김원훈의 ’드립 외길 인생‘에 고비를 안긴 이민정, ‘열정 폭주’ 활약으로 웃음 활력을 선사한 이선빈 등 스타 게스트들의 강력한 코미디 바이브가 시청자들의 ’불토‘를 책임졌다.

특히 ’후 부장님‘ 백현진의 투입은 ’신의 한 수‘라는 극찬을 끌어냈다. 예민한 ‘꼰대 상사‘ 캐릭터였던 백현진이 ’깐족 마스터‘ 김원훈과 부딪히며 만드는 시너지와 어디로 튈지 예측 불가한 캐릭터 변주는 시청자들에게 흥미로운 웃음을 선사했다. 마지막 화에서 백현진이 DY기획의 위기에 책임감을 느끼며 사의를 표명했다가 환영하는 직원들의 예측 못한 반응에 5G급으로 번복하는 변덕 퍼레이드는 대폭소를 안겼다. 재무 위기로 DY기획의 존립이 명확하지 않은 채 최종화가 마무리됐으나 시즌 3 제작이 빠르게 확정되면서 마지막 엔딩이 또 다른 시작임을 암시하며 시청자들의 쾌재를 부르게 만들고 있다.

시즌 1에 이어 ‘직장인들’을 이끌고 있는 신동엽은 “‘직장인들’은 직원들 덕분에 웃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작품”이라며 “시즌 2에서는 DY기획에 구조조정 위기가 닥치고,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어 잠시 쉬어가게 됐다. 많이 웃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라는 인사로 현실과 연출 사이의 ‘웃음 밀당’을 끝까지 유지했다. 시즌 2에 새롭게 합류한 백현진은 “첫 촬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났다니 너무 아쉽다. 다들 내게 너무 잘해줬고, 원훈이랑 치고받는 것도 정말 재밌었다”라며 유쾌한 소감을 전했다. 자기애 캐릭터로 업그레이드된 이수지는 “막상 시즌 2가 끝나니 짧은 시간처럼 느껴진다. 제일 재미있었던 순간은 현봉식 씨와 키스했을 때”라며 끝까지 웃음 텐션을 끌어올렸다. 끝으로 김원훈은 “시즌 1에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 시즌 2는 부담이 됐는데, 다행히 케미가 잘 맞아가고 있다. 현장에서는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웃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진심 어린 당부를 남겼다.

웃음 DNA를 장착한 DY기획 직원들의 고농축 애드리브에 스타 게스트들의 예측 불가한 활약으로 범접 불가한 극사실주의 오피스 코미디 장르의 업그레이드를 보여주며 올타임 레전드급 웃음을 완성한 ‘직장인들’ 시즌 1, 2 전편은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으며, 쿠팡 와우회원 아니어도 누구나 무료로 시청 가능하다.

INFORMATION

제목 직장인들 시즌 2
영제 The White Collars Season 2
기획 안상휘
연출 김민, 강나래
작가 안용진, 한소리, 최은옥, 원혜진
제공 쿠팡플레이
제작 씨피엔터테인먼트
공개 전편 공개 완료

coupang play

쿠팡플레이(Coupang Play) 소개
쿠팡플레이는 쿠팡 와우회원뿐 아니라, 일반회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쿠팡의 OTT(over-the-top) 서비스입니다. 오리지널 콘텐츠, 스포츠 중계, 국내외 TV 시리즈, 최신 영화, 가족 및 키즈 콘텐츠, 실시간 뉴스까지 폭넓은 라인업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쿠팡플레이가 직접 기획·제작·송출하는 스포츠 축제를 비롯한 이벤트들을 통해 화면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확장된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냅니다. 쿠팡플레이의 더 많은 소식은 공식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쿠팡플레이 인스타그램 / 유튜브)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